

# 제주향교의 조영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ructional Characteristics of Jeju-HyangGyo

지태승\*      박정근\*\*      박철민\*\*\*  
Ji, Tae-Seung      Park, Chung-Keun      Park, Chul-Min

###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certain how HyangGyos based on national ideology were built in Jeju Island and what their detailed styles are. In Jeju-HyangGyo, uniqu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re shown as they have been built in an island independent from the mainland. Also up-down system was well reflected in detailed architectural styles. The main temple of Jeju-HyangGyo was built in the type of one-Chulmok(a subsidiary material of Gongpo and a piece of wood to support the eaves) of which ancon supports a purline from the center of a pillar and two-Ikgong(a piece of wood engraved to put on an ancon), but in the case of the lecture hall, its Gongpo(a piece of wood to support the eaves) was inferior in quality. In the case of Jeju abutments were used in main temples and fire walls were mostly used. In particular, their abutments are difficult to be observed in HyangGyo in the mainland. It is presumed that the abutment and the fire wall used in Jeju Island might be the best solution to protect structures from rain and moisture. To sum up, local characteristics and traditional rules were thoroughly reflected in Jeju-HyangGyos built in Jeju Island from the aspect of arrangement and detailed style. In conclusion, it is significant that architectural styles, not to mention the other aspects of Jeju culture, were suitably adapted to Jeju Island

키워드 : 향교, 제주도, 조영적 특성, 지역적 특성

Keywords : HyangGyo, Jeju Island, Constructional Characteristics, Local Characteristic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향교의 건립배경이 된 유교 문화는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도성의 건설에서부터 종묘, 가묘, 향교 건축과 일반 민가에 이르기까지 건축 전반에 걸쳐 유교의 이념적 특성이 반영되어 왔다. 향교건축은 고려시대 인종 5년인 1127년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조선 초기 서울에는 대학 차원의 성균관, 소학 차원에서는 중앙에 사학, 지방에 향교를 건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위패를 봉안한 제향공간과 공자의 유교이념을 학습하는 강학공간으로 구성되는 향교 건축은 조선조 승유정책과 더불어 지방의 인재양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제주는 중앙의 수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의 대표적인 유배지로 각인되어 왔으며, 교화가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일찍이 조선시대 태조 원년인 1392년에 향교가 설립

되었다. 당시 제주에 유배되어온 유학자들이 향교를 통하여 제주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여 왔으리라 본다. 제주지역의 향교는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文廟□明倫堂□齋 그리고 기타 부속건물로 구성되었는데, 즉 교육공간으로서 강의실인 명륜당과 기숙사인 재가 있었으며, 배향공간으로 공자의 위패를 비롯한 四聖과 우리나라 十八賢의 위패를 배향하는 大成殿으로 구획되었다.

제주도내에는 제주향교와 대정향교, 정의향교가 건립되어 보존되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이건과 중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창건 당시의 배치체계 고증과 더불어 각 건축물에 대한 구조체계 등의 실질적인 연구는 미흡하다고 보이며, 지금까지는 교육사적 연구나 문화재 관리기관의 보고서 등 주로 포괄적인 연구로서만 진행되어왔다.

한국 전통건축의 기본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기단형식, 가구체계, 공포양식 등의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는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교육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재정립하고, 제주지역 전통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특수성을 바로 정립하여 보존, 연구 자료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지역에 소재하

\* 정회원,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건축사

\*\*\* 정회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E-mail : chul3705@cheju.ac.kr)

고 있는 향교 중 제주향교를 중심으로 전통건축의 기본 구성요소인 기단 구성방법, 가구체계, 공포양식 등의 조영적 특징을 분석하여, 제주지역 향교건축이 갖는 세부적 특성을 찾아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현재 제주도에는 제주목의 제주향교, 대정현의 대정향교, 정의현의 정의향교가 건립되어 보존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제주향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제주향교는 규모와 조영적 측면에 있어서 대도시 향교와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계성사, 전사청, 내삼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중건된 명륜당의 가구구조는 현재 조영된 가구와 양식을 토대로 분석되었으며, 예전의 명륜당 양식 등은 사료부족으로 인해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로 제주 교육과 향교에 관련된 문헌조사와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重建時期 또는 移建時期와 관련한 사항은 대부분 문헌조사에 의존하여 수행되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제주향교의 기단구성, 가구체계, 공포양식 등을 관찰 및 실측을 실시하였다.

## 2. 제주지역 향교의 현황

지방의 관학교육기관인 향교는 고려 인종5년(1127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유교가 국가의 건국이념이 된 조선시대에는 府, 牧, 郡, 縣 각 지방에 1개교씩 설치되었다. 여러 가지 설이 상존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 처음 제주향교가 설치된 것은 태조3년(1394년) 3월 都評議使司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역 향교의 경우, 여러 차례의 이진 과정을 거치면서 창건 당시의 세부적 구조체계 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히 제주지역의 향교에는 제향공간 내 건축되는 동무와 서무가 조영된 향교가 한 군데도 없다. 창건 당시의 정확한 기록의 부재로 동, 서무의 조영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외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향교조영 규범에 입각하여 이진 되었다.

조선시대 제주향교의 경우, 봉안위 수가 성균관과 같고, 공자를 정위로 하여 4성과 공문 10철, 송조 6현을 대성전의 좌우에 배향하고 동, 서무에는 중국의 명현 47위와 우리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제주 삼읍 향교 모두 공자를 정위로 4성을 배향하고 송조 4현과 신라, 고려, 조선조의 명현 18현을 문묘에 종사하고 있다.<sup>1)</sup> 제주 삼읍에 설립된 향교와 건물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주지역 향교 현황

향교명	창건연대	창건위치	현존건물현황	배치유형
제주향교	순조27년 (1827년)	제주시 용담동	대성전, 명륜당, 계성사, 전사청, 내삼문 등	좌묘우학
정의향교	현종15년 (1849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수호사, 수선당, 내삼문, 외삼문 등	좌묘우학
대정향교	효종4년 (1653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등	전학후묘

## 3. 제주향교의 현황

### 3.1 일반적 고찰

1971년 8월 26일 제주도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제주향교는 제주민을 교육 교화하고 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기 위하여 1392년(태조 원년)에 창건하였다. 제주목에 설립된 제주향교의 처음 위치는 지금 제주시 원정로(예전의 제주성 교동) 부근이었다. 세종 17년(1435년) 최해산 안무사가 재건한 이후, 세조12년(1466년)에 이유의 절제사가 중수하였고, 중종 31년(1536년)에는 심연원 목사가 옛 터에 새로 옮겨지었다. 그리고 선조 15년(1582년) 김태정 목사가 가락천 동쪽에 위치한 고령밭으로 옮겼고, 영조 31년(1775년)에는 홍태두 목사가 지금의 광양삼성초등학교 부근으로 옮겼다.<sup>2)</sup> 그 후 순조 27년(1827년)에 이행교 목사에 의해 지금의 제주시 용담동으로 옮겨졌다. 또 철종 6년(1855년)에는 제주 유림들이 아뢰어 계성사를 함께 건립하였다.

1945년 12월 향교 구내에 제주중학교를 설립하여 사용하게 되자, 향교는 겨우 대성전 부지만 남게 되어 옛 향교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sup>3)</sup> 제주중학교 설립으로 철거됐던 명륜당은 근간에 규모와 구조를 새로이 하여 재건되었다. 제주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계성사, 전사청, 내삼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의 위패를 중심으로 안자, 증자, 자상, 맹자 등의 4성, 공문 10철과 송조6현 및 우리나라의 명현 18현을 봉안하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이고 기둥머리는 1출목 2익공이며 2고주 7량의 구조이다. 원뿔대형의 높은주춧돌과 뒷면의 이중 기둥이 특징적이다. 이곳에는 공자를 위주로 孔門十哲, 송조6현과 한국의 18현을 모시고 있다. 대성전 뒤에는 공자의 동상이 서 있다. 계성사는 철종 5년인 1854년에 지은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4칸에 초익공집이며 5성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조선조 제주향교의 운영은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 등

1) 吳松喜,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實態,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2002, p.10

2)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1998, p.183

3) 金奉玉,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1, p.117

을 지급받고 교수관 1명이 정원 7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해마다 봄가을 2회에 걸쳐 석전제를 봉행한다. 현재에는 도내 유림의 모임과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남아 있다.

### 3.2 배치구성상 특징

향교는 제향공간이 주요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교 건축의 성격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엄밀히 종교목적의 건축형태는 아니다. 국가의 건국이념과 융화되어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보편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이념적 의미가 함축된 향교는 제주 삼읍에 각각 설립되어 3개소의 향교가 현존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향교는 여러 차례의 이진 과정으로 인해 초창기의 배치 형식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조영규범에 벗어나지 않고 지역적 특성에 맞춘 배치기법으로서 특색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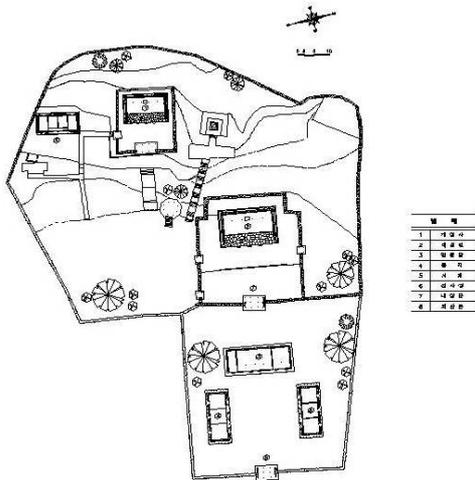


그림 1. 제주향교 배치도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1998, p.186'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임)

전체적으로 구릉을 낀 경사지에 위치한 제주향교는 순조 27년(1827년)에 현 위치인 제주시 용담동에 건립되었다. 주변에는 제주 목관아지와 관덕정이 인접하여 있고, 내삼문 동측으로는 제주중학교가 현재 자리 잡고 있다. 향교 부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낮은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고저 차는 약 7~8m 가량으로 다소 완만한 지형으로서 조금씩 정지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명륜당 전면에 넓은 마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좌측의 높은 지형에는 계성사 영역이 위치하고 있고, 전면에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향영역이 위치하고 있다. 또 명륜당과 대성전 사이 공간에는 정자가 건립되어 있어 유생들의 휴식과 담소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또 정자 옆으로 조성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계

성사 전면에 계성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측 담장으로는 협문이 설치되어 있어, 좌측 공간에 자리 잡은 전사청과 동선을 연결하였다. 또한 계성사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계성사를 포근히 감싼 듯 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명륜당 마당에서 협문을 통해 대성전으로 들어서면 동쪽으로 내삼문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는 대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소 완만한 경사지형은 2단으로 조성되어, 최상부에는 공자 부친의 위패를 봉안한 계성사 영역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하단부에는 대성전과 명륜당 영역이 위치하고 있다.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이 2개의 서로 다른 중축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횡축은 서로 일치시켜 동일한 축으로 배치되었다.

성리학적 질서규범에 의해 조영된 현재 제주향교의 배치는 창건 당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통상 경사지나 소규모 도시에서는 前學後廟形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창건 이후 제주향교 전면부에 중학교가 건립됨으로 인해 향교의 배치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과로 창건 당시 전학후묘의 배치양식이 현재는 좌묘우학의 배치양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 배치에서 보면, 대성전을 전면에서 보아 좌측에는 명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성전과 명륜당 뒷부분으로는 계성사가 위치하고 있다. 제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사청은 계성사 좌측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사주문을 통한 별도의 출입구로 계성사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 제사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위계에 입각하여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배치구성에서 대성전 출입은 전면 내삼문의 통로 폭이 좁아 측면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협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창건 당시는 대성전 전면의 삼문을 통하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림 1>과 같이 창건 당시의 배치를 추정하여 보면 내삼문 외곽에 명륜당과 동재, 서재를 둔 강학영역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 서재와 명륜당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前齋後堂形으로 추정하였다. 또 현재 명륜당 좌측에 건립된 외삼문의 위치도 제향영역 앞의 강학영역 전면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배치양식상 변천요인들은 중학교 설립에 따른 변화 과정에서 파생되었으며, 前學後廟의 배치양식이 左廟右學의 배치 양식으로 전이된 결과라 볼 수 있다.

### 4. 제주 향교의 조영 특성

향교건축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는 달리 소박한 조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대성전의 경우는 위계성을 고려하여 전면에 틈간을 둔 평면형식을 취하며, 공포는 출목 이익공양식을 채택하여 향교내의 다른 건물과는 다

소 격식을 높인 형태로 건축되었다. 하지만 그 외의 건물들은 대개 민도리양식이나, 초의공양식의 간단한 구조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도 대성전은 5~7랑가를 형성하는 반면, 그 외의 건물들은 3~4랑가로 꾸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대도시에 조영된 향교의 경우는 東廡와 西廡가 대성전 전면에 건립된 사례가 많으나, 제주지역의 향교에서는 조영되지 않았는데, 제주향교의 조영적 체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 대성전

계성사 아래쪽의 낮은 지형에 조영된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4칸(전퇴 포함)의 익공계 합각지붕 형식의 건물로써, 소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3×4칸 규모가 사용됨을 고려하면 비교적 큰 규모로 조영됐음을 알 수 있다.

대성전 전면에 소규모의 중정을 두었고 양측 담장에는 사주문이 설치되어 있다. 또 2개층의 기단 앞에는 솟을삼문 형식의 내삼문이 자리 잡고 있다. 포살미와 보머리, 화반 등에 화려한 초각을 하였고, 대공은 화려하게 초각된 波蓮臺工을 사용함으로써 대성전의 격을 높이려는 의도로 장식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멋을 느끼게 해주는 외관은 한국의 전통적인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기둥의 석간주색 단청과 측면, 후면의 火防壁은 건물에 전체적인 안정감을 주어 시각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며, 주변과 잘 조화된 재료를 사용하여 제주 특유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전면에는 개방형 퇴칸을 설치하여 제향의식 때의 편의를 고려하였으리라 생각되며, 내부 바닥은 자연판석으로 마감했다. 기단은 상층과 하층, 2개층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층기단은 하부에 저석을 놓고 그 위에 자연석 바른층 쌓기로 두벌대로 쌓았고, 상층은 자연석 바른층 쌓기를 외벌대로 쌓았으나, 측면과 후면에는 측구를 놓아 두벌대로 구성되었다. 하층 기단에는 자연석 3단 계단이 좌, 우측에 각 1개소씩 놓여져 있다.

초석은 덩벙주초와 정평주초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평주열에는 2중의 정평초석이 사용되었고, 고주열에는 덩벙주초가 1단으로만 사용되었다. 외진평주에는 초석위에 다시 고복석과 유사한 형태의 장주형 초석을 설치하여 2중 초석의 형식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2중 초석의 설치하는 타 지방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수법으로 기우량이 많은 제주 지방의 기후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중 초석위에는 흠림이 없는 원통형 기둥을 설치하였다.

특이한 것은 隅柱 외곽으로 활주 형태의 갓기둥을 설치하여 출목도리와 추녀를 받친 구조를 취하였으며, 후면에는 이중기둥의 구조로서 평주 외부에 추가로 기둥을 설치하였다. 활주가 아닌 갓기둥이 출목왕지도리를 떠받

는 구조는 한국 전통건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희귀한 경우라 하겠다.

또한 갓기둥 상부에는 보뿔목과 유사한 형태의 돌출재를 네 면에 설치하여 의장적인 용도와 보수 시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방형의 창방은 뿔목을 살미형상으로 길게 뺀 형태이며, 소로를 사용하지 않고 외출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표 2. 대성전의 조영 현황

	전면	후면	
전경			
기단	우주 및 갓기둥 초석 	퇴칸 고주 초석 	
공포	측면 공포 	주상포 상세 	귀포 상세 
	퇴칸 가구 	화반대공 상세 	내부 가구 
	삼소로 화반 	퇴칸 고주 보아지 	내부 바닥 
가구	내부 투시도 		

이미지 그림 출처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p.114

벽체와 창호의 구성은 좌, 우측면과 후면은 1.7m의 반화방벽을 설치하였고, 전면 어간에는 상방과 하방으로 기둥사이를 연결하여 네 짝 세살청판문을 두었다. 좌, 우협간에는 상방, 중방, 하방을 두고 상방과 중방 사이에는 고정교살창을 설치하였고, 창문외의 부분에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좌우퇴칸에는 상방과 하방을 기둥사이에 연결하여 중간에 두 짝 세살청판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공포의 구성은 1출목 2익공 형식이며, 4면이 동일한 형식의 공포양식을 사용하였다. 초익공과 이익공의 쇠서에는 보상화문 모양의 초새김으로 장식하였으며, 수서형 익공으로 제작되었다. 두공첨차와 행공첨차에도 쇠서와 유사한 형태로 보상화모양이 초새김되었다. 주두와 소로의 형태는 굽이 없는 평주두와 평소로를 사용하였으며, 이익공양식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재주두는 사용되지 않았다.

가구의 구성은 2고주 7량으로 도리의 형태는 굴도리를 사용하였으며, 전면에는 개방형 퇴칸을 두었다. 모를 접은 장방형의 뒷보는 고주에 장부맞춤으로 고정하였고 평주에서는 이익공 위에 앉았다.

뒷보뿔목은 이익공 상부에 얹어 寶相化 모양의 초새김으로 마무리 하였다. 또한 고주와의 연결부분에는 반소로 위에 보아지를 두어 뒷보를 받치고 있다. 독특하게 뒷보에만 굽기단청으로 마감하였다. 또 평주의 초익공 내단에는 童子柱와 유사한 형태의 부재를 얹어 뒷보와 연결하였다. 대성전 4면의 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이소로 화반을 사용하여 장여를 받치고 있다. 장방형의 단면을 가진 대들보는 전면과 후면의 고정방식이 조금 다르다. 퇴칸에서는 내진고주 상부에 주두를 두어 대들보를 얹었고, 후면에서는 외진평주 공포 상부, 즉 이익공 위에 대들보를 얹는 구조로 형성하였다.

모를 다듬은 방형 단면의 대들보는 고주의 주두 상부에 얹어 고정하였으며, 대들보 위에는 童子柱를 세우고 주두를 놓아 종보를 받치고 있다. 또 종보 상부에 화려한 寶相化紋 문양의 波蓮臺工을 놓아 단장여와 장여, 중도리를 떠받고 있다. 상중도리 하부에는 뜬장여가 사용되었고, 특이하게 종보 상부의 童子柱에 보아지 형태의 부재를 놓아 장여를 받치고 있다. 고주에도 창방을 걸고 상부에 화반을 설치하였으며, 4면 모두 삼소로 花盤이 사용되었다.

지붕은 합각지붕형식으로 되어 있고,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서까래의 마구리는 사절하였으며, 부연은 마구리를 바싹질하여 초매기 상부에 앉았다. 기와는 한식중기와를 얹었고 막새기와가 사용되었으며, 합각박공에는 풍판을 대어 마무리 하였다.

내부는 천정을 사용하지 않은 연등천정으로 구성하였다. 단청은 전체 모로단청이 사용되었으며, 머리초는 도리부분과 창방부분이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도리와 장여에는 연화머리초로 장식되었고, 창방에는 창방머리초로 장식되었다.

#### 4.2 명륜당

명륜당은 전면 9칸, 측면 2칸의 솥을지붕과 합각지붕이 혼합된 형태이며 좌, 우에 동실과 서실을 두었다. 기단은 두벌대 단층기단으로 자연석을 가공한 장대석 바른층 쌓기 하였으며, 좌측면과 후면은 대지 지형에 따라 외벌대

로 구성됐다. 초석은 원형으로 가공된 정평주초가 사용되었다. 계단은 전면 우측과 우측면에 1단의 장대석 계단을 각 1개소 씩 설치하였다.

기둥은 배흘림이 있는 원주가 사용되었고 전면 어칸과 협칸에는 솥을지붕으로 구성되어 퇴칸부 기둥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전면의 벽체는 기둥과 기둥사이를 상방과 하방으로 연결하고 중앙에 두 짝 세살청판문을 설치하였으며, 솥을지붕 부분의 출입문은 다소 높은 문이 설치되었다.

출입문과 기둥사이에는 중방과 문설주를 세우고 나머지 부분을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측면과 후면 하부에는 높이 1.2m의 반화방벽으로 처리하였고, 중방 상부에는 두 짝 여단이 세살창을 주칸마다 두었으나 후면의 솥을지붕 부분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공포는 솥을지붕부분과 합각지붕부분의 구조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솥을지붕부분의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 양식이 사용되었으나 합각지붕부분에는 민도리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솥을지붕부분의 초익공과 이익공은 수서형 쇠서로서 연화무늬로 초새김하여 마감하였고,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화반을 두어 두공첨차와 화반사이의 공간에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합각지붕의 양측 퇴칸부는 보와 도리로만 구성된 민도리 양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여와 보의 끝단에는 연꽃모양으로 단청하였고, 보머리는 사절하여 계눈각 형태로 초새김하였다.

표 3. 명륜당의 조영 현황

	옛 명륜당 전경	현재의 명륜당 전경	
전경			
기단	어칸 계단	기단 전경	평주 초석
			
	어칸 이익공	이익공 내단	내부 전경
공포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구성되었으며,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대들보는 장방형 단면으로서 외진평주의 이익공상부에 얹어 보뿔목을 물익공 형태로 마감하였고 고주에는 주두하부에 연결하여 장부맞춤 산지치기로 고정하였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워 장방형 단면의 종보를 받치고 있다. 종보 상부의 대공은 솥을지붕부분과

합각지붕 부분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있다. 솟을지붕 부분의 대공은 보상화문을 조각한 과련대공을 놓아 장여와 종도리를 받고 있으나, 합각지붕부분의 대공은 키대공으로 처리하여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처마는 4면 모두 겹처마로 구성하였으며 서까래는 장연과 단연을 사용하였으며, 단부는 사절하여 마무리 하였고, 부연은 마구리를 바싹질하였다. 솟을지붕 측면에는 목기연을 두고 박공널을 대었다. 솟을지붕과 합각지붕을 혼합한 지붕면에는 한식중기와를 사용하였고, 기와 끝에는 막새기와가 사용되었다.

내부 바닥 마감은 동실과 서실에는 온돌바닥으로 구성하였고 중앙부 강당에는 우물마루가 사용되었다. 천정은 동실과 서실에는 우물천정으로 구성되었으나, 중앙부 강당에는 연등천정으로 구성하였다. 내, 외부의 단청은 전체적으로 굿기단청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

### 4.3 계성사

전면 5칸, 측면 4칸(퇴칸 포함) 규모의 계성사는 제주 향교에서 가장 높은 지형에 평지를 조성하여 배치시켰으며, 건물 양식은 합각지붕으로서 출목이 없는 이익공 양식이다.

전면에는 대성전과 같이 제향시 편의를 고려한 개방형 퇴칸을 형성하였으며, 퇴칸 바닥에는 자연석을 방형 또는 정방형으로 가공하여 마감했다. 전면 기단은 화강암 바른층 쌓기로 두벌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측면과 후면의 기단은 화강암 외벌대 형식으로 바른층 쌓기 하였다. 기단 앞쪽의 중정에는 잔디를 깔아 조성하였으며, 주변으로는 고목과 어울어진 자연석 담장을 허튼층 쌓기 형식으로 쌓아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기단 상면은 전면에는 방형, 장방형의 자연석을 깔았으나 측면과 후면에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었다.

계단은 전면에 디딤돌 형식의 1단 계단을 3개소 설치하였다. 초석은 퇴칸 평주의 초석과 내진고주의 초석이 서로 다른데, 퇴칸 평주 초석의 경우, 장주형 초석을 2중으로 쌓아 2중 초석을 형성하였고, 고주의 초석은 원주형 정평초석위에 목재로 둥글게 조각된 주좌위에 기둥을 올려놓았다. 또 내부의 퇴칸 평주 초석은 둥글게 다듬은 정평초석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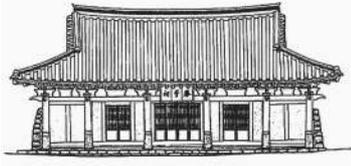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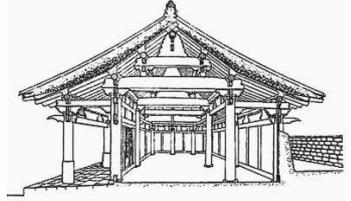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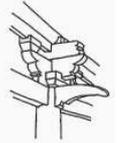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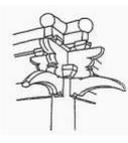
기둥은 배흘림을 약하게 둔 圓柱가 사용되었으며, 우주에는 귀솟음을 두었다. 벽체와 창호의 구성은 전면 어칸에는 상방과 하방을 기둥사이에 연결하고 네 짝 세살청판문을 두었다. 협칸에는 상방과 하방 사이에 두 짝 세살청판문을 두었으며, 퇴칸 전체는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측면과 후면 벽체는 1.6m의 火防壁을 쌓아올려 외진주를 감쌌고, 상부는 창문 없이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공포는 4면이 동일한 이익공 형식으로서, 초익공과 이익공이 일체화 되지 않은 조선초기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초익공은 수서형태의 살미를 사용하였고, 이익공은 물익공

형태로 조각되었다. 창방 상부에는 화반을 두었으며, 어칸과 협칸에는 삼소로 화반을 설치하였으나, 협칸과 측면에는 이소로 화반을 두었다.

주두와 소로의 형태는 굽이 없는 평주두와 평소로가 사용되었다. 가구의 구성은 2고주 7량으로 전면에는 퇴칸을 두었으며 도리는 굴도리가 사용되었다. 장방형의 툇보는 고주에 장부맞춤으로 고정하여 하부에 보아지를 두었고, 보빨목은 초새김하여 이익공 상부에 얹었다.

표 4. 계성사의 조영 현황

	계성사 전경	봉안위 전경
전경		
정면도		
가구 투시도		
귀공포 상세		
		
	내부가구 전경	내부 바닥
내부		

이미지 그림 출처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p.216

종보와 대들보는 원형에 가까운 향아리형 단면으로서 모서리를 굴리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들보를 高柱 상부에 얹고 동자주를 놓아 종보를 받치고 있으며, 종보 위에 波蓮臺工을 설치하여 장여와 종도리를 받고 있다. 특히 총량의 형태가 특이한데 고주와 연결된 부분은 낮고 평주에 고정된 부분은 높게 형성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하부에는 보아지를 두었다. 고주에도 창방을 걸어 상부에 화반을 설치하여 대성전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平柱의 화반과는 달리 4면 모두 삼소로 화반이 사용되었다.

지붕은 합각지붕의 겹처마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서까래의 마구리는 사절하였고, 부연은 바싹질하여 초매기 상부에 얹었다. 내부바닥은 최근에 장판을 깔아 마감하였으며, 천정은 내부 가구가 노출된 연등천정으로 구성하여 서까래 사이에는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기와는 한식중기과가 사용되었으며, 막새기와를 사용하지 않고 아귀토로 기와 끝을 마감하였다. 丹青은 대성전과 같이 전체적으로 모로단청이 사용되었으며, 머리초는 도리부분과 창방부분이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도리와 장여에는 연화머리초로 장식되었고, 창방에는 창방머리초로 장식되었다.

#### 4.4 전사청

명륜당 뒤편의 한 단 높은 평지에 조성된 전사청은 전면 4칸 측면 2칸(퇴칸 포함) 규모이며, 민도리 양식의 맞배지붕 건축물이다. 비교적 소박하고 아담한 외관을 갖고 있다. 전면에는 퇴칸을 설치하여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측면과 후면에는 대들보와 도리 하부까지 자연석 막쌓기하여 火防壁을 쌓아올렸고 흙을 이겨 틈을 메웠다.

기단은 전체적으로 외별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면은 부정형의 판석을 깔아 마감하였다. 초석은 자연석 덩벙주초가 사용되었으나, 상면은 평평하게 마무리하여 원통형 기둥을 세웠다.

전면에는 상방과 하방을 각 주칸마다 연결하여 두 짝 청판문을 달았으며, 출입문 외의 부분에는 중방을 걸고 그 사이를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또 전면 퇴칸부에는 출입문을 제외한 부분에 일부 화방벽을 쌓아 올렸다. 후면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제외한 부분에 화방벽으로 처리하였다. 기둥은 흘림이 없는 원통형 기둥이 사용되었으며, 隅柱에는 귀솟음을 두었다. 뒷보는 고주에 장부맞춤 산지치기하여 고정하였으며, 뒷기둥 상부에 보머리를 직절하여 화통가지 맞춤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뒷보 하부에는 보아지를 두어 내단을 사절하여 처리하였다.

가구의 구성은 1고주 5량가이며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또 서까래는 단연과 장연으로 구성하고 삼분작법으로 분할하여 중도리 위에 걸쳐 고정하였다. 대들보는 장방형 단면으로서 평주의 상부에 얹어 화통가지 맞춤으로 고정하고 고주에는 상부에 장부맞춤 산지치기로 고정하였다.

표 5. 제주향교의 조영적 특성

건물명	평 면(정면×측면)	기 단	기 둥	공 포	대 공	처 마	지 붕
	퇴 칸	초 석		가 구			
계성사	5칸×4칸	외별대(바른층쌓기)	원 주	무출목이익공	파런대공	겹처마	합각지붕
	전 퇴	정평주초		2고주7량가			
대성전	5칸×4칸	외별대(바른층쌓기)	원 주	1출목이익공	파런대공	겹처마	합각지붕
	전 퇴	정평주초+덤벙주초		2고주7량가			
명륜당	9칸×2칸	두별대(장대석바른층)	원 주	민도리+이익공	파런대공+키대공	겹처마	맞배지붕+합각지붕
	없 음	정평주초		1고주5량가			
내삼문	3칸×1칸	외별대(막돌)	원 주	민도리	평각대공	흘처마	맞배지붕
	없 음	정평주초		3량가			
전사청	4칸×2칸	외별대(막돌)	원 주	민도리	키대공	흘처마	맞배지붕
	전 퇴	덤벙주초		1고주3량가			

측벽에는 대들보와 중보를 노출하여 마감하였으며, 가구재 사이에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박공에는 목기연을 설치하였고 박공하단에는 계눈각으로 초각하였다.

표 6. 전사청의 조영 현황



대들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놓아 중보와 중도리를 받치고 있으며, 중보 위에는 키대공을 설치하여 중도리와 장여를 받고 있다. 동측 협칸과 서측 퇴칸은 장판지로 바닥을 마감하고 우물천정을 설치하였고 서측 협칸과 동측 퇴칸은 우물마루를 깔고 서까래를 노출한 연등천정으로 마감하였다. 기와는 한식중기과가 사용되었으며, 막새기와를 사용하지 않고 아귀토로 기와 끝을 마감하였다. 기둥과 보, 도리 등의 가구에는 석간주색으로 가칠단청을 하여 부속채의 용도를 고려한 소박한 형태로 조영되었다.

#### 4.5 내삼문

대성전의 중정 전면에 조성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솟을삼문 형식의 민도리 양식으로 조영되었다. 기단은 외별대로 낮게 조성하였으며, 상면은 자연석을 방형, 장방형으로 다듬어 깔았다. 초석은 정평주초위에 원뿔형 정평주좌를 놓아 흘림이 없는 원통형 기둥을 세웠다. 주칸마다 두 짝 여단이 청판문을 두었으나 여칸의 청판문을 크게 설치하였다.

벽체는 측면 외측으로 자연석 막쌓기로 조영된 火防壁을 대들보 하단까지 쌓아 올렸으며 내측은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栱包는 보와 도리로 구성된 민도리 양식이

며, 어칸 가구는 3량가로서 굴도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후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상부에 복화반대공을 놓아 종도리와 장여를 받치고 있고, 협칸에는 평각대공은 세워 종도리와 장여를 받치고 있다.

지붕은 어칸부가 높게 조영된 맞배지붕형식으로 처마는 전후면 모두 흘처마로 구성하였다. 측면 박공에는 목기연이 설치되었으며, 박공 끝단에는 계눈각으로 초새김하였다. 丹青은 기둥과 판문에는 석간주색으로 가칠단청하였으며, 보와 도리에는 머리초를 장식한 모로단청으로 마감하였다. 특히 도리 끝에는 길상무늬(吉祥紋)를 새겨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표 7. 내삼문의 조영 현황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향교건축이 갖는 세부적 특성을 찾아내어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주향교를 중심으로 전통건축의 기본구성요소인 기단 구성방법, 가구체계, 공포양식 등의 조영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향교의 대성전은 1출목 이익공양식으로 조영되었으나, 명륜당은 중앙에 이익공형식, 양 협칸에는 민도리 양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격을 달리 두었다는 점에서 상하의 위계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단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대성전은 다소 높은 기단이 사용된 반면, 그 외 건물들은 외벌대의 낮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구의 구성에서도 제향영역의 건물과 강학영역의 건물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대성전의 가구는 보아지와 波蓮臺工 등을 사용하여 조금은 화려한 형식을 띠고 있는 반면, 명륜당에는 키대공을 주로 사용하여 소박하면서도 교육기능의 본래 목적을 고려한 조영양식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둥의 사용에 있어서도 대성전 등 제향영역의 건물은 배흘림이 있는 원주를 사용하고 있으나, 강학영역의 건물은 흘림이 약한 圓柱나 方柱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처마는 대성전 등에는 겹처마가 사용되고 있다. 또 처마의 마무리에서도 대성전 등에는 막새기와가 쓰였으나, 그 외는 아귀토로 마감하여 소박하면서도 정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건물의 외형을 완성하는 단청의 사용에 있어서도 대성전과 명륜당 등의 마감형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성전 등에서는 모로단청으로 마감하였고 명륜당 등 강학영역의 건물들은 주로 가칠단청으로 마감되었다.

둘째,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기후적 조건들을 고려한 조영특성들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향교의 대성전에서 사용된 갓기둥과 대부분 건물에 조영된 화방벽이다. 특히, 갓기둥은 타 지역 향교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양식으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나, 강우량이 많은 제주지역의 기후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에 조영된 일부 건축물에서 전면은 겹처마를 두고 후면은 흘처마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후면에 습기가 많아 목조건축물의 특성상 습기에 약한 부분을 최소화하여 건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사용된 갓기둥과 화방벽은 빗물과 습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출목으로 조영된 제주향교의 대성전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주의 외곽에 갓기둥을 두었는데, 길게 뻗은 주녀와 사례, 출목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과 습기로 인한 구조재의 탈락을 자연스럽게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火防壁의 사용 또한 빗물과 습기에 약한 목재를 보호하며, 노출부위를 최소화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이려는 지혜가 깃들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제주향교는 세부적인 양식 등에 있어서 지역적 특수성과 유교의 조영규범을 철저히 반영하여 조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타 지역의 양식과 조영기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에 맞는 조영양식을 구현하였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尹熙勉, 朝鮮後期 鄉校 研究, 一潮閣, 1990
2. 韓基彥, 韓國儒敎史, 1983
3. 金知民, 鄉校建築의 造營規範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4. 鄭大永, 慶北義城鄉校 建築의 特性에 關한 研究, 2004
5. 鄭勝謨, 書院 祠宇 및 鄉校 組織과 地域社會體系(上), 1989
6. 金龍德, 朝鮮後期 鄉校研究, 韓國史學 5, 1982
7. 韓東一, 朝鮮時代 鄉校敎育制度의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79
8. 李範稷, 朝鮮前期 儒學敎育과 鄉校의 機能, 『歷史敎育 20集』, 1976
9. 文化財 管理局(현, 文化財廳), 韓國의 鄉校 建築, 1998
10. 韓國建築歷史學會, 韓國建築踏查手帖, 2006
11. 金知民, 傳統建築研究, 꾸밈, 1986
12. 김중업, 탐라문화사, 제주 조약돌, 1986
13. 濟州道志(上) 濟州道, 1982
14. 한라일보사, 한라연감, 1991
15. 吳松喜,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實態,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論文, 2002
16. 金奉玉,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1
17. 濟州道, 濟州의 文化財, 1998

(接受: 2008.07.10)